

GIST 오창명 교수, 고령친화산업육성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22년부터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맡아 광주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 위한 기반 조성 및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한국형ARPA-H프로젝트 등 주요 국가R&D 참여...
"AI 기반 디지털전환 융합 기술 통해 초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



▲ 의생명공학과 오창명 교수(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가 '고령친화산업 정책 포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의생명공학과 오창명 교수가 '2024년도 고령친화산업 정책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화) 밝혔다.

오창명 교수는 광주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령친화산업 육성 유공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22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에 취임한 오 교수는 ▲고령친화산업의 DX융합 기반조성 및 기업지원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지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사용성 평가 지원 등을 수행 중이며, 현재 장애인·노인 대상의 보조기기 연구개발, 한국형ARPA-H프로젝트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오 교수는 "국내 고령친화산업 선진화를 위해 더욱 힘써 달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전환(DX) 융합 기술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24년도 고령친화산업 정책포럼'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기업 임직원 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견희홀에서 11월 20일(수) 개최되었다.